KB Bond In One 7월

발행에 대한 부담에도 밀리면 매수로 대응

KB증권

채권 Analyst 임재균, CFA
jk.lim@kbfg.com
연구원 이정욱, CFA
junguk@kbfg.com

채권분석

2025년 6월 30일

더 많은 리포트 보기

속도조절은 가능하지만, 방향성의 근거가 바뀐 건 없다

대선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 다만, 금리가 상당 부분 상승한 가운데, 국고 3년과 10년 금리가 2.5% 및 2.9%를 상회할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고려하면 금리의 상단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KB증권은 하반기 전망에서 언급했던 8월 말 예산이 발표되기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최종 기준금리 2%에 대한 전망으로 3년 금리의 하단은 2.40%로 판단하는 가운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10년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10-3년 스프레드는 더 축소 압력을 받을 것이다.

7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하겠지만 완화적인 스탠스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으로 안정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우려 요인이었지만,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가격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했다. 과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매수세가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한은의 인하 기대감을 더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급 부담에 신경쓰고 있는 한은과 선제적 대응하고 있는 기재부

올해 국채 발행이 많은 점도 한은의 부담이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발행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다. 2차 추경까지 고려할 경우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103.3조원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며, 11~12월은 북 클로징으로 발행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는 20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발행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한은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기재부도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초 이후 경쟁입찰에서 30년의 발행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2~3년의 발행 비중은 28% 내외로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금리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3년의 비중을 5월에는 33.5%까지 확대한데 이어, 7월에는 36.8%까지 확대했다. 이에 반해 10년의 비중은 6월 11.9%, 7월에는 9.9%까지 축소했다.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리가 상승할수록 기재부는 10년의 발행 비중을 더 축소시킬 것이다.

7월 FOMC에서 적어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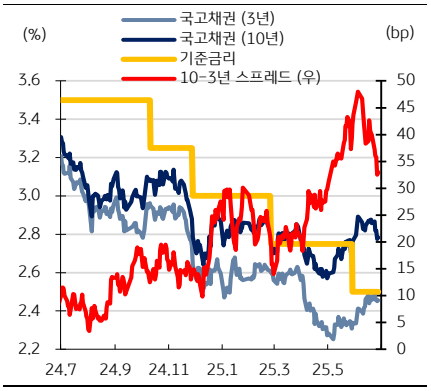
6월 FOMC에서 확인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내에서도 관세가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만,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적어도 7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개진될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1기와 달리 물가에서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은 영향도 존재한다. 다만, 경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만큼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보다는 마진을 축소하고 있을 수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지난 5월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는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둔화되고 있다.

월간 금리 동향 및 전망

(%)	6월 동향	종가	7월 전망
국고 3Y	2.34~2.50	2.46	2.40~2.50
국고 10Y	2.78~2.89	2.79	2.70~2.90
미국 10Y	4.24~4.51	4.28	4.15~4.35

자료: Bloomberg, 인포맥스, KB증권 전망
주: 6월 동향은 1-27일, 종가는 27일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발행에 대한 부담에도 밀리면 매수로 대응

금리 상단은 3년 2.5%, 10년 2.9%.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매수로 대응

5월 월간 전망에서 금리하락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28). 6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의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 경기는 반등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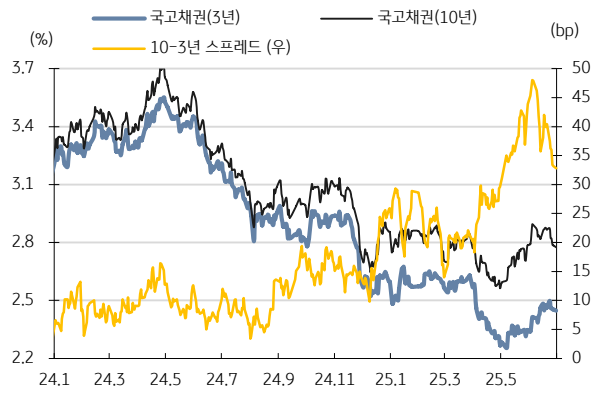
금리가 상당 부분 상승한 가운데, 국고 3년과 10년 금리가 장중 2.5% 및 2.9%를 상회할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의 상단은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KB증권은 하반기 전망에서 언급했던 8월 말 예산이 발표되기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최종 기준금리 2%에 대한 전망으로 3년 금리의 하단은 2.40%로 판단하는 가운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10년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10-3년 스프레드는 더 축소 압력을 받을 것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으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이다. 다만, 시장은 7월을 동결로 봤다는 점과 6월 선거 이후 시장의 기대가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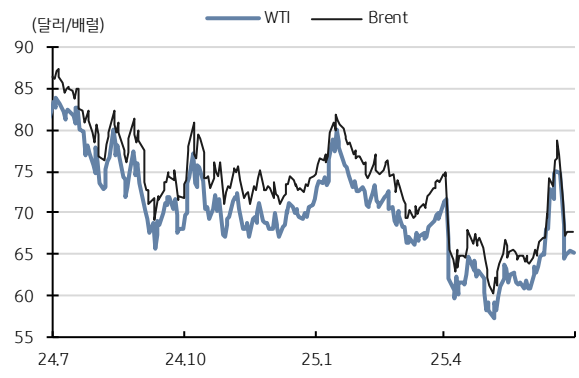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금리인하 기대를 후퇴시켰던 요인은 유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였다. 다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이란-이스라엘의 휴전으로 상당 부분 완화됐다. 향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란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시장이 우려했던 요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인데, 미국이 이란에 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림 1. 한국 국채 금리 및 10-3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2.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이후 재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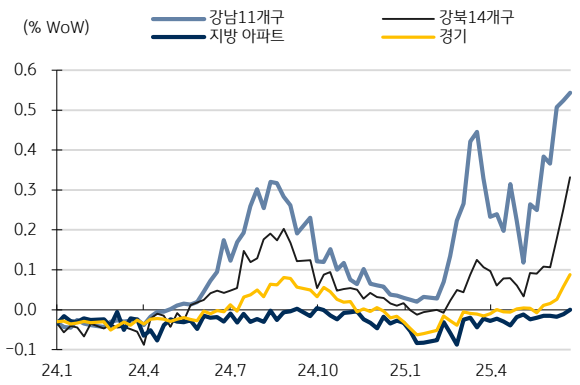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한 정부. 일단 서울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한은의 인하 여력을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걸림돌이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 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10~15억원 주택들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재기되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다만,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이 대출을 이용한 매수 수요가 높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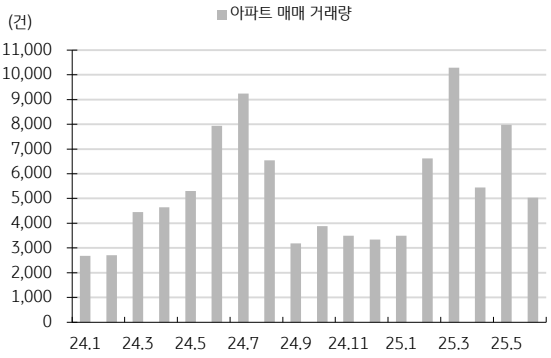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단기간 강남과 마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의 금리인하 여력을 더 높게 만들었다. 더욱이 6억원 대출 한도와 함께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도 기존보다 50% 감축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림 3.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가팔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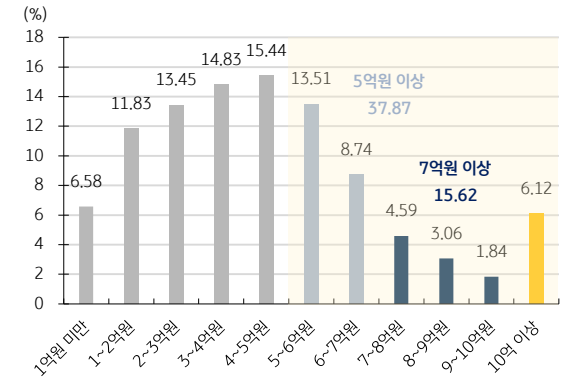
자료: KB부동산, KB증권

그림 4. 4월과 달리 5월 이후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했다는 점은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자료: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KB증권

그림 5. 주택 담보 대출 규모별 비중



자료: 김도읍 의원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KB증권
주: 1~6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만 집계

그림 6.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대출 억제 정책 중심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
총량관리	가계대출 목표치 50% 감축, 정책대출 25% 감축	25.7 월~
주담대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6 억원 한도 설정	6.28~
LTV 강화	생애최초 LTV 80%에서 70%로 축소, 전입의무 6 개월 부과	6.28~
다주택자 규제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LTV=0%)	6.28~
생활안정자금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1 억 한도, 다주택자 금지	6.28~
대출 만기 제한	수도권 주담대 만기 최대 30 년	6.28~
전세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90% -> 80%	7.21~
신용대출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6.28~

자료: 금융위원회,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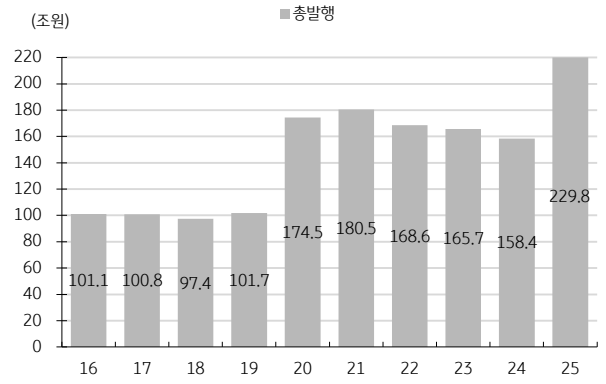
국채 발행도 많아 한은은 지속해서 인하 기대감을 열어놓을 것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많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일 것이다.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가 빠르게 2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발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2차 추경 30.5조원 중 적자국채 19.8조원 그리고 외평채 조정 3조원으로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총 229.8조원이다. 올해 상반기 발행된 국채가 123.6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총

103.3조원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월별로는 17.2조원으로 상반기 월 평균 (20.6조원)보다 감소하지만, 11~12월은 북 클로징으로 발행 규모가 적다. 2014~24년까지 7~12월까지의 발행 비중을 고려하면 9월까지는 총 20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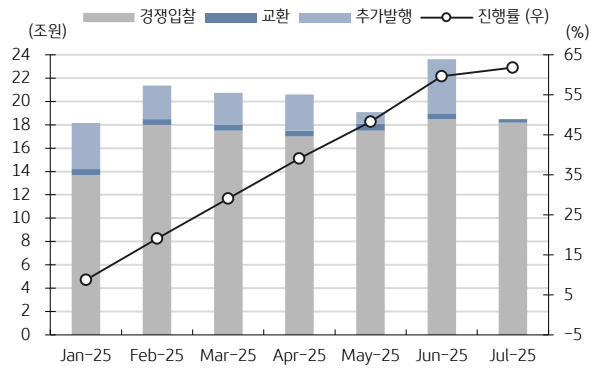
지난 5월 금통위에서 한은 총재가 최종 기준금리가 2%를 하회하는 기대를 차단하면서 한은이 향후 인하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2차례이다. 지난 6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에 와있다고 언급하면서 빠르게 인하를 단행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 이상 시장 금리의 하락 재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가운데, 하반기에도 국채 발행은 상당하며 한은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

그림 7. 국채 발행 규모. 올해는 역대 최대



자료: 기획재정부, KB증권

그림 8. 올해 월별 국채 발행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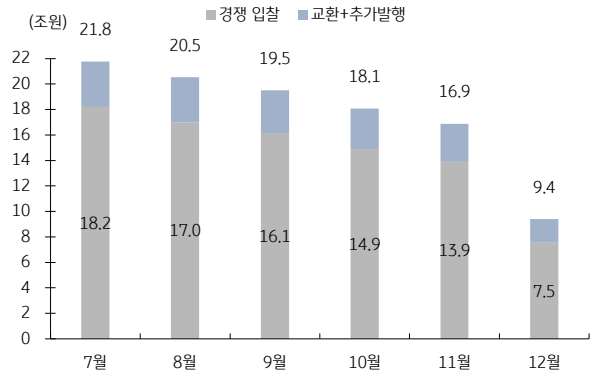
주: 발행 진행률 계산시 3월까지는 197.6조원, 4~6월은 207.1조원 (1차 추경 반영), 6월 이후는 229.8조원 (2차 추경 반영)

그림 9. 하반기 발행해야 하는 국채 규모

항목	금액 (조원)
A: 2025 년 국채 발행 규모	229.80
B: 상반기 발행 (6 월 30 일 기준)	123.62
C: 올해 남아있는 발행 규모	106.18
D: 7 월 경쟁입찰	18.20
E: 교환	0.30
F: 7 월 추가 발행 (=D x 올해 평균 옵션 실행률 18%)	3.28
G: 7 월까지 발행 규모	145.39
H: 8 월 이후 발행 규모 (=A-G)	84.41
I: 8~12 월 평균 발행 규모 (=H/5)	16.88

자료: 기획재정부, KB증권

그림 10. 2014~24년 8~12월 월 평균 발행 비중을 고려했을 경우 하반기 발행되어야 할 국채 규모



자료: Bloomber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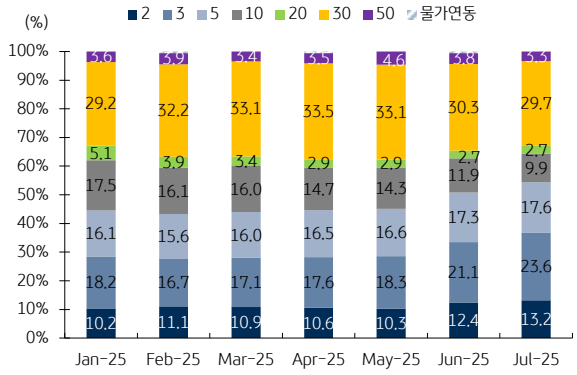
한은과 더불어 만기별 발행 비중 조절을 통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기재부

실제 지난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다. 하지만, 한은은 매우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올해 국채 발행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금리가 반등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확인했다.

또한, 기재부도 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7월 경쟁 입찰 규모는 18.2조원으로 지난달 (18.5조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경쟁 입찰보다 주목해서 봐야하는 것은 만기별 발행 비중이다. 기재부는 연초 이후 보험사의 수요에 대응해 초장기물의 발행 비중을 높였지만, 지난 6월에는 추경 등 수급에 민감한 10년의 발행 비중을 11.9%까지 축소시킨데 이어, 7월에는 9.9%까지 축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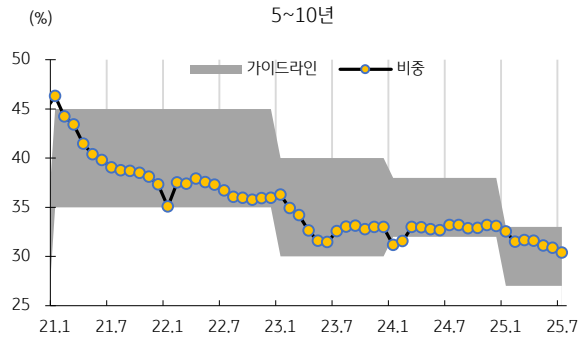
수급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질 때마다 기재부는 10년의 발행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다. 더욱이 5~10년의 발행 목표 비중은 27~33%인 가운데, 7월 경쟁 입찰까지 포함해도 30.4% 수준이다. 아직 5~10년의 발행 비중을 축소시켜도 여전히 발행 목표 비중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림 11. 만기별 경쟁 입찰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KB증권

그림 12. 5~10년 비중은 30.4% 수준. 수급 우려로 장기물 금리가 상승할 경우 5~10년 비중을 더 축소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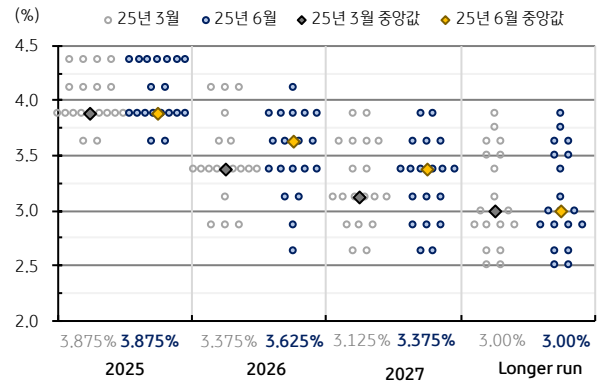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인포맥스, KB증권

연준도 7월 FOMC에서 적어도 소수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음

대외 환경도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점도표에서 연준 위원들은 동결과 2회 인하로 나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파월은 연준 위원들간 전망과 리스크를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경제전망 능력에 대해 겸손 (Humble)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연준 내부에서도 관세가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준 위원들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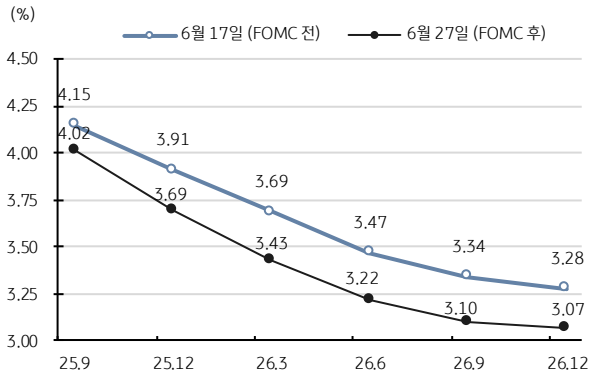
6월 FOMC 이후 월러와 보우만 연준 이사는 7월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7월 FOMC (한국시간 7월 30~31일) 전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7월 FOMC에서 적어도 인하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등 핵심 상품은 하락했다.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부과 2~3개월 이후 물가에 대부분 전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물가에서 관세의 영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림 13. 연준의 점도표



자료: FRB, KB증권

그림 14. 6월 FOMC 이후 SOFR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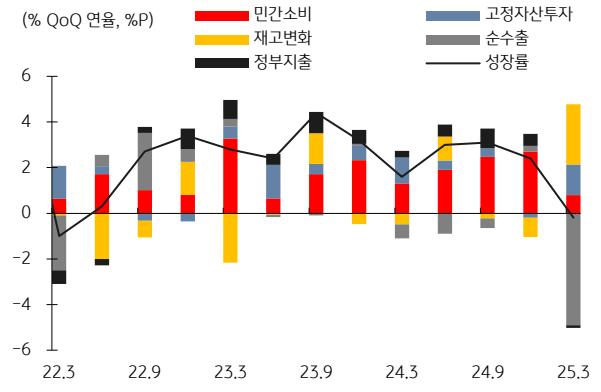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생각보다 나타나고 있지 않는 관세의 물가 상승 영향. 선제적으로 쌓아놓은 재고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취약한 경기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걸 주저하고 있을 수 있음

관세 부과 전 쌓아놨던 재고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와 달리 경기는 둔화되고 있으며, 펜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상품 가격은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마진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지난 5월 고용지표를 보면 비농업부문의 고용자수는 예상보다 견고했지만, 실업률은 지난 9월 FOMC 빅 컷의 트리거가 됐던 지난 7월보다 높았으며 경제활동 참여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부 내용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 연장은 없으며, 그 전에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궁지로 몰아넣어 협상에서 이득을 취하는 트럼프의 협상 방법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10%보다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재차 경기 둔화 우려는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5. 관세 부과를 앞두고 1분기 대규모 수입으로 1분기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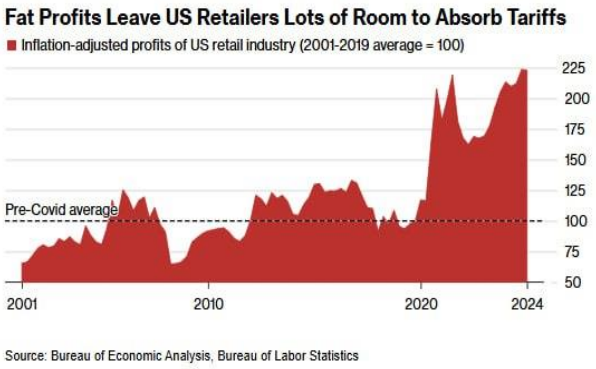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B증권

그림 16. 트럼프 1기와 다른 현재의 미국 상황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경기 사이클	확장	수축
물가	Disinflation 고민	증가율은 낮아졌지만, 레벨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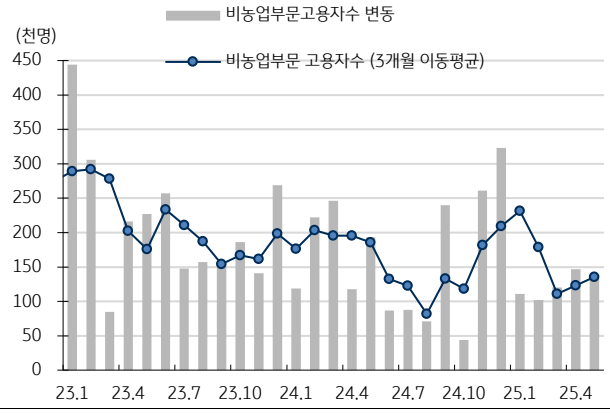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7. 기업들의 마진은 많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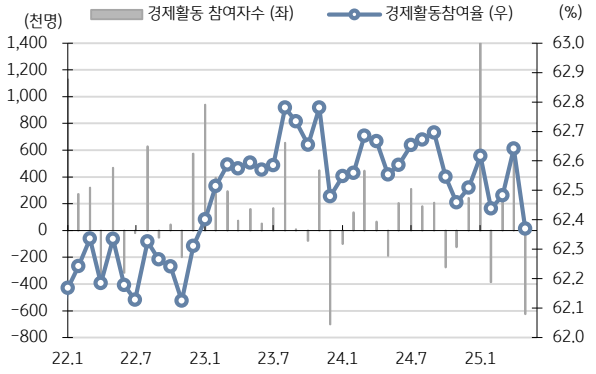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8.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견고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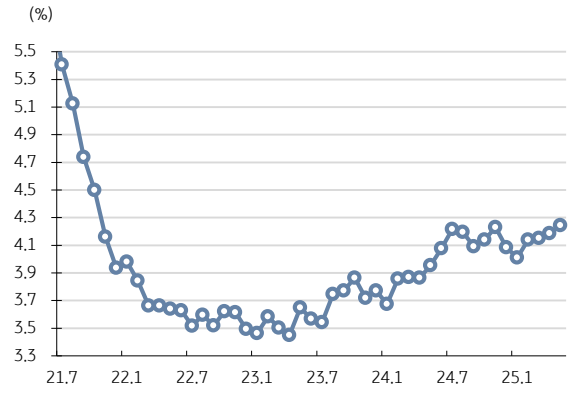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19. 경제활동 참여자수도 대폭 하락



자료: Bloomber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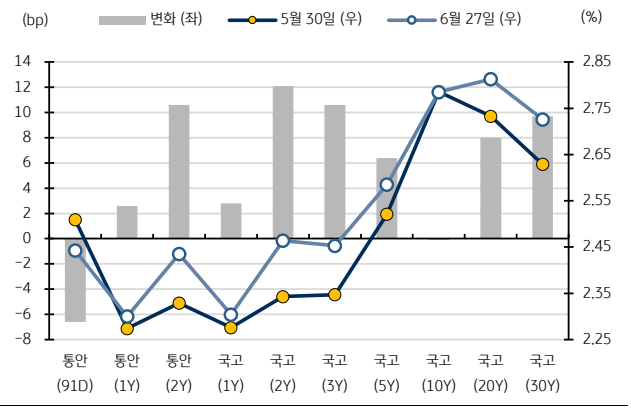
그림 20. 실업률은 지난 9월 빅 컷의 트리거가 됐던 2024년 7월 수준을 상회



자료: Bloomber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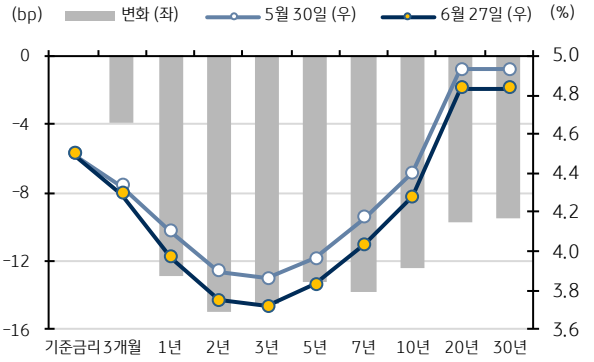
주요 차트 및 중앙은행 인사 발언

그림 21. 한국 금리 월간 변동. 경기 회복 기대,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에 한은 금리인하 기대 지연되며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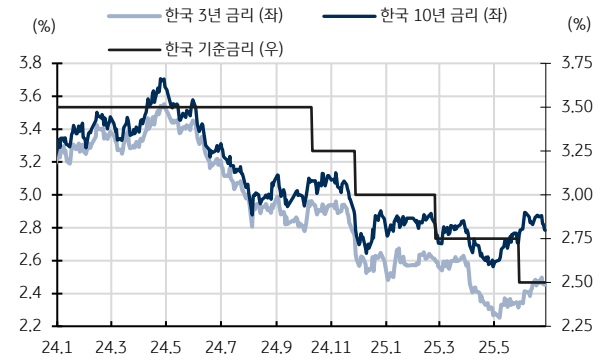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22. 미국 금리 월간 변동. 경기는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월러, 보먼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금리인하 기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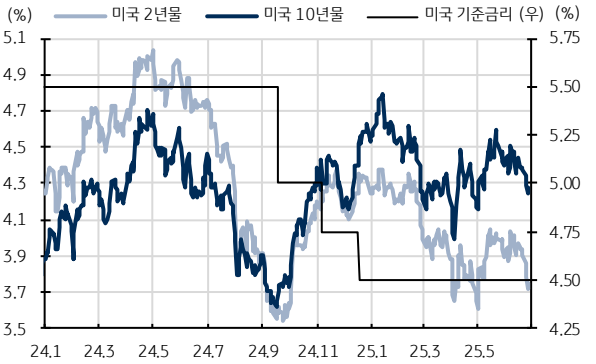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23. 한국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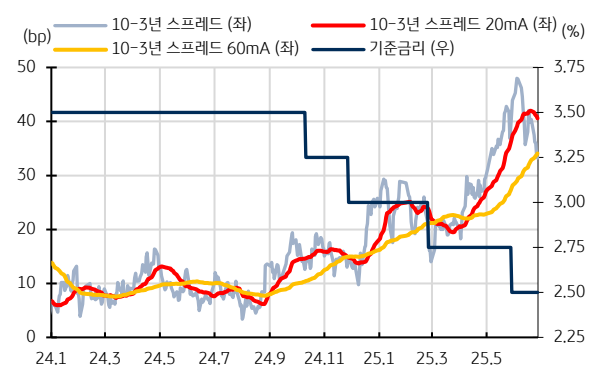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24. 미국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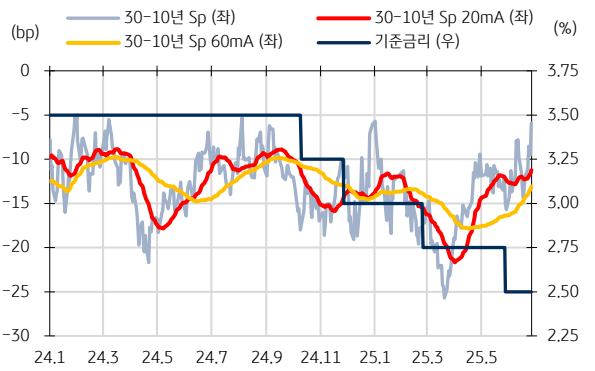
그림 25. 한국 10-3년 스프레드 33.2bp. 전월대비 10.7bp 축소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주: 6월 27일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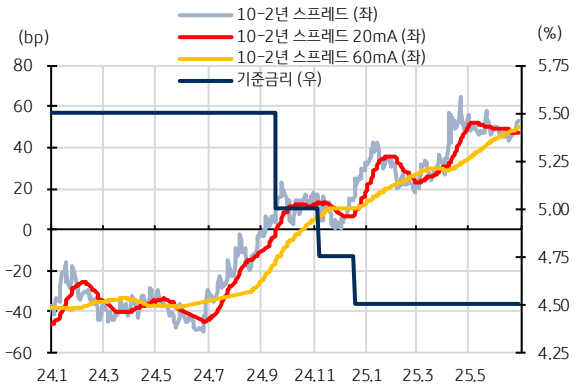
그림 26. 한국 30-10년 스프레드 -5.9bp. 전월대비 9.8bp 역전폭 축소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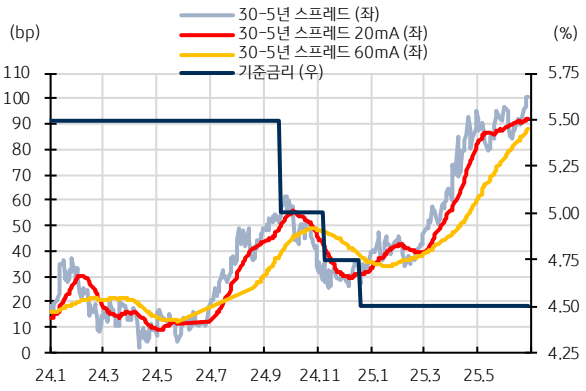
주: 6월 27일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 기준

그림 27. 미국 10-2년 스프레드 52.9bp. 전월대비 2.6bp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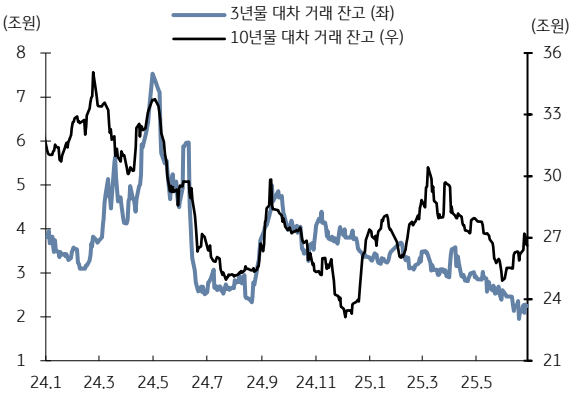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28. 미국 30-5년 스프레드 100.51bp. 전월대비 3.6bp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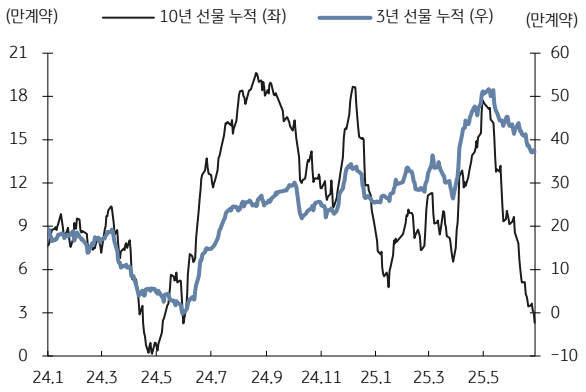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B증권

그림 29. 3년과 10년의 대차 거래 잔고. 전월 대비 3년 3,640억원 감소, 10년 1조 7,171억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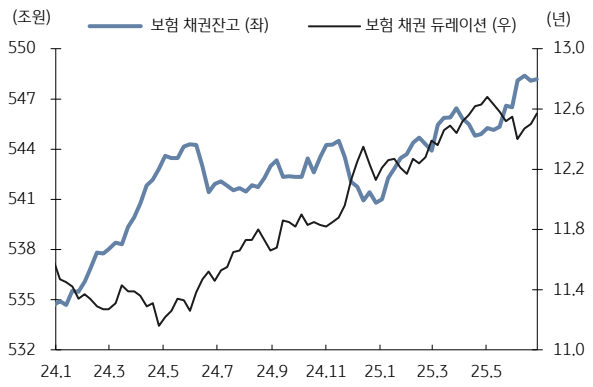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30. 외국인의 국채 선물 누적 순매수. 전월 대비 3년 59,632계약 감소, 10년 68,233 계약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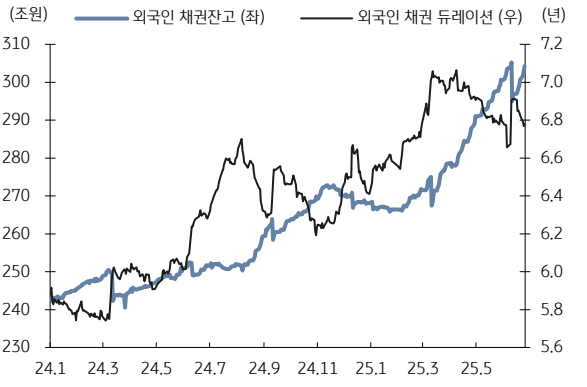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31. 보험사 듀레이션 및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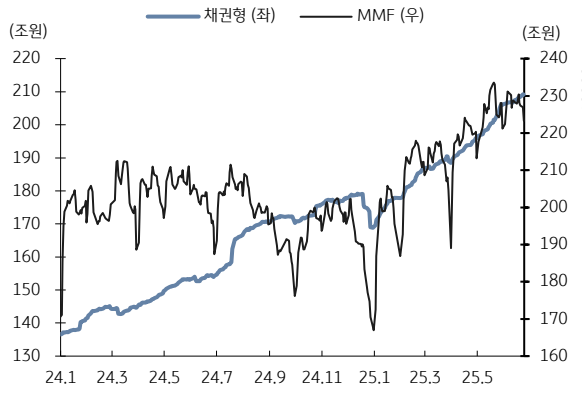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32. 외국인 듀레이션 및 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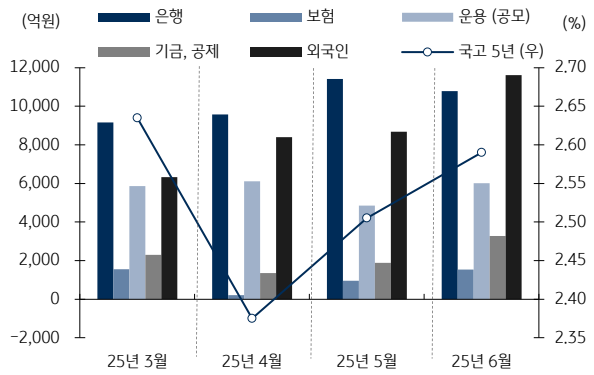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그림 33. 채권형펀드, MMF 잔고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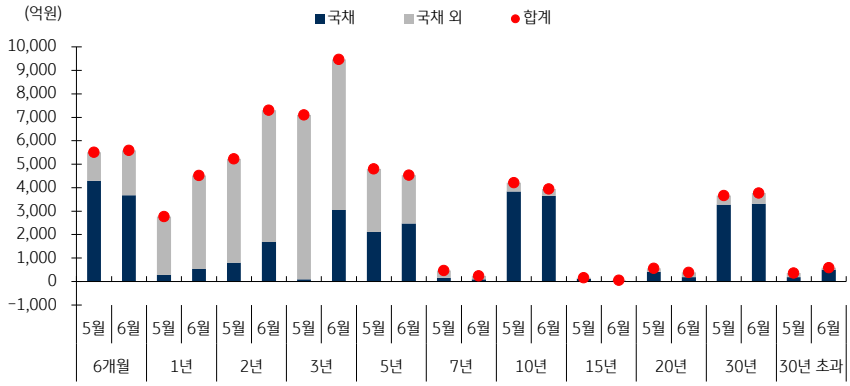
그림 34. 주체별 일평균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주: 국고 5년 금리는 월말 기준, 6월은 27일 기준

그림 35. 전체 기관의 만기별 일평균 순매수



자료: 인포맥스, KB증권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

7월 KB Bond Scheduler

채권 Analyst 임재균, CFA jk.lim@kbfg.com
해외채권 Analyst 박준우, CFA junoo.park@kbfg.com
크레딧 Analyst 박문현, CFA, FRM mh.park@kbfg.com
연구원 이정욱, CFA junguk@kbfg.com
연구원 류민성 rms2100@kbfg.com

6/30 ★ **한국 5월 산업생산** ★ 중국 6월 국가통계국 PMI ★ 독일 6월 CPI 잠정치 ● 국고채 2년 입찰 2.4조원 ● 통안채 91년 입찰 0.5조원	**1** ★ **한국 6월 무역지표** ★ 미국 6월 ISM 제조업 ★ 미국 5월 JOLTS ★ 유로존 6월 CPI 잠정치 ★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 일본 2Q 단칸 제조업지수 ● 국고채 30년 입찰 5.4조원	**2** ★ **한국 6월 CPI** ★ 미국 6월 ADP 고용 ★ 유로존 5월 실업률 ● 통안채 2년 입찰 2.3조원	**3** ★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 미국 6월 고용지표 ★ 미국 5월 무역수지 ★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4** 미국 휴장 ★ **한국 5월 경상수지** ★ 유로존 5월 PPI ● 국고채 (물가) 교환 0.1조원
7 ★ 유로존 5월 소매판매 ★ 유로존 7월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 중국 6월 외환보유고 ★ 독일 5월 산업생산 ● 국고채 3년 입찰 4.3조원	**8** RBA 통화정책회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 미국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 통안채 91년 입찰 0.6조원 ● 미 국채 3년 입찰	**9** FOMC 의사록 ★ **한국 지준일** ★ 중국 6월 M2, 총사회융자 (TSF) ★ 중국 6월 CPI, PPI ● 통안채 1년 입찰 0.6조원 ● 미 국채 10년 입찰	**10** 금통위 ★ 일본 6월 PPI ● 미 국채 30년 입찰	**11** ★ 독일 6월 CPI 확정치 ● 국고채 50년 입찰 0.6조원
14 ★ 중국 6월 무역지표 ● 국고채 10년 입찰 1.8조원 ● 통안채 91년 입찰 0.6조원	**15** ★ 미국 6월 CPI ★ 유로존 5월 산업생산 ★ 중국 6월 실물지표 (소매판매, 광공업생산 등) ★ 중국 2Q GDP ★ 독일 7월 ZEW 서베이지수 ● 국고채 (명목) 교환 0.2조원	**16** 미국 Beige Book ★ **한국 6월 고용지표** ★ **한국 6월 수출입물가지수** ★ 미국 6월 산업생산 ★ 미국 6월 PPI ★ 유로존 5월 무역수지 ★ 영국 6월 CPI ● 통안채 3년 입찰 1.2조원	**17** ★ 미국 6월 소매판매 ★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 미국 6월 수출입물가지수 ★ 유로존 6월 CPI 확정치	**18** Blackout (19~) ★ 미국 7월 미시간소비자심리 ★ 미국 6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 일본 6월 CPI ● 외평채 1년 입찰 1.2조원
21 일본 휴장 ★ **한국 7월 수출입 20일** ★ 미국 6월 CB 경기선행지수 ● 국고채 5년 입찰 3.2조원 ● 통안채 91년 입찰 0.6조원	**22** ★ **한국 6월 PPI** ● 국고채 20년 입찰 0.5조원	**23** ★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 미국 6월 기존주택매매 ★ 유로존 7월 소비자기대지수 ● 통안채 1,2,3년 모집 0.5~0.7조원 ● 미 국채 20년 입찰	**24** ECB 통화정책회의 ★ **한국 2Q GDP 속보치** ★ 미국 7월 S&P PMI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 유로존 7월 HCOB PMI ★ 독일 8월 GfK 소비자기대지수 ● 미 국채 10년 (TIPS) 입찰	**25** ★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 독일 7월 IFO 기업환경지수 ★ 중국 6월 산업생산 (27일)
28 미국 재무부 분기 순차입 계획 ● 통안채 91년 입찰 0.6조원 ● 미 국채 2년 입찰 ● 미 국채 5년 입찰	**29** 금통위 의사록 ★ 미국 6월 JOLTS ★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 ★ 미국 5월 S&P CS 주택가격 ★ 미국 7월 CB 소비자신뢰지수 ● 미 국채 2년 (FRN) 입찰 ● 미 국채 7년 입찰	**30** FOMC, BOC, BCB 통화정책회의, 미국 재무부 분기별 발행 계획 ★ 미국 2Q GDP 속보치 ★ 미국 6월 미결주택매매 ★ 유로존 2Q GDP 속보치 ★ 호주 6월 CPI ★ 독일 2Q GDP 속보치	**31** BOJ 통화정책회의, 한국 국채 발행 계획 ★ **한국 6월 산업생산** ★ 미국 6월 PCE ★ 미국 2Q 고용비용지수 (ECI) ★ 유로존 6월 실업률 ★ 중국 7월 국가통계국 PMI ★ 독일 7월 CPI 잠정치	

★ **국내 경제지표** ★ 해외 경제지표 ● 국고채, 통안채 발행 및 만기
자료: Bloomberg, 인포맥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각국 중앙은행, KB증권/주1: 해외지표는 현지시간 기준/주2: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KB증권

자료: 인포맥스,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 통계청, 미 재무부, KB증권

주: 한국시간 기준/국채입찰 (입찰금액, 응찰률 최근치, 응찰률 이전치)/경제지표 (예상치, 실제치, 이전치)/국채 응찰률은 가중평균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